

2016년 12월 키르기즈의 친구들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하는 12월의 시점에 일년을 돌아보면, 한국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그래도 특검과 헌재의 결과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한국의 사회와 정치적인 환경이 그분의 크신 섭리가운데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위해 기원합니다. 어두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과 빛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도, 성경과 상황을 동시에 깊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알라토 그룹홈(보육원)

라이사 보모 이후 몇 개월 동안 보육원을 책임지던 따찌아나 선생님에게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실제 건물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 주던 교회의 운영위원들로부터 저희 단체로 연락이 왔습니다.



따찌아나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네에 살면서 이곳 현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굴누라 선생님을 추천하여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굴누라 선생님이 지금은 은퇴했지만, 교사와 유치원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라서 보육원을 책임맡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이 결정된 굴누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드림아카데미

드림아카데미의 가을학기 학생모집은 80명 정원인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결국은 120명을 등록받아 시작했습니다. 저희 드림아카데미가 유명해 졌나봅니다(*-*) . 아무튼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있고, 주말 활동과 방학중 캠프 등이 연결되어 단지 수업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나타샤 선생님이 한국에 1년간 유학을 가게 되어서, 이번 가을에 새로운 현지

선생님(굴라)이 보강되었습니다. 굴라 선생님은 제가 10여년 전 이곳 현지 인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수사역을 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대학원과 직장생활을 하다가 키르기즈로 돌아와 결혼을 하고 정착하고 있는데, 마침 드림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보강되어야 하는 시기와 맞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굴라 선생님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아주 좋아해서 잘 연결이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된 학생들과 굴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 교회(새언약 교회)

교회에서는 몇 년동안 모아온 헌금을 가지고 난방이 취약한 예배실의 바닥난방 공사와 현관을 달아내어 이중으로 문을 설치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회 젊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맞추어 조금씩 하고 있어서, 기간은 길어지지만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마쉬까(러시아어: 가정모임)에는 담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백뚜르와 디아나 부부, 최근에 일 자리를 잃은 아딜렛과 비기마이 부부, 검사인 싱글 아질렛, 피부과에서 일하는 굴지앗, 그리고 대학생 아셀과 아이추렉이 매주 금요일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 그룹의 가족들에게 있는 감사와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더 친밀해 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도 생기지만 소그룹을 통해 백뚜르 전도사 부부가 지도력을 가지고 잘 인도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백뚜르 전도사는 교회에서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선은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전임으로 교회 사역에 전념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인 디아나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요즘 유니세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도움은 주고 있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옆에서 함께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과 소그룹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N.T. Wright의 에브리원 주석 번역 작업

누가복음은 이제 인쇄 단계에 들어가서 사복음서 4권이 완성되었고, 갈라디아서-데살로니가전후서 감수 작업이 끝났고, 이제 지난 봄에 하던 사도행전의 감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빈 교수님은 건강 문제로 지난 겨울에 본국인 호주에서 종합 정밀 검사를 한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키르기스로 돌아와 번역 작업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허벅지 부분이 계속 아파서, 결국은 이번 겨울에 어느정도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12월 말에 호주로 돌아가서 수술과 회복 후 돌아올 예정인데, 로빈 교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가족 스케치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이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대학사회가 강의와 관련된 과제물들이 프로젝트 형태로 함께 해결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과제 형태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활동과 함께 IVF 활동을 하고 있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지내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네요. 지난번에는 지아가 하는 말이 '하루가 30시간 정도면 좋겠다'고도 하는데(*-*) 쉽지 않겠지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활 가운데에 학문과 신앙이 균형있게 잘 설장 하면서 자기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헤브론정, 엘레나김 드림